

# 호남제일문 대표관광지 조성 본격화

### 전주시, 북부권 관광인프라 구축·복합스포츠타운 조성 돌입... 실내체육관·복합스포츠타운 주차장 조성 등 추진

전주시는 올해를 '호남제일문 대표 관광지' 조성의 원년으로 삼고, 복합스포츠타운 조성과 호남제일문 일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해 10월 전주의 관문인 호남제일문과 전주 월드컵경기장 일대를 수준 높은 경기관람과 스포츠 체험, 힐링, 나들이 등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스포츠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대표관광지 조성사업'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추진해온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 공사에 이어 전주

실내체육관과 복합스포츠타운 주차장 조성 공사가 시작된다.

이 가운데 실내체육관의 경우 총사업비 800억 중 주경기장 건축공사비만 498억 원 규모로, 올해는 1차 공사분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327면의 주차장이 들어설 복합스포츠타운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전체부지 1만4224㎡의 토지 매입을 마무리하고, 실시계획을 거쳐 올 하반기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스포츠시설 집적화 사업과 별개로 체육시설 주변 부지에 들어설 각종 스포츠 연계 문화관광 기

반 시설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늦어도 오는 8월까지 밑그림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용역에는 스포츠타운 내 공공체육시설의 남북 연결을 가로막고 있는 월드컵골프장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타당성 검토와 조촌천을 활용한 친수 여가 공간 조성 방안 등도 포함된다.

동시에 시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프로축구 구단인 전북현대 선수단과 축구팬을 위해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경기장 조명을 최신 LED조명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또, 13억 원을 투입

해 전북현대 창단 30주년 기념관과 팬샵, 각종 시설물 보수 등을 통해 지역민과 프로구단 연계를 강화하고 경기장의 찾는 시민들의 관람 편의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2024년은 민선8기 들어 전주시가 약속했던 각종 사업이 구체화 되는 시기이다. 전주가 백만 광역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10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이의 연계한 호남제일문 대표 관광지 조성사업이 전주 북부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한해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인 '전주 도서관 여행'을 인솔하며 책의 도시 전주를 알릴 여행해설사 6명이 위촉됐다.

## 도서관 여행해설사 6명 위촉

### 도서관 해설·안내 등 '책의 도시 전주' 소개

올 한해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인 '전주 도서관 여행'을 인솔하며 책의 도시 전주를 알릴 여행해설사 6명이 위촉됐다.

전주시는 지난 8일 올해 전주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인솔과 도서관 안내 등을 진행할 '2024년도 도서관 여행해설사' 6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전주 도서관 여행해설사를 위촉해왔으며, 올해 위촉장을 받은 6명은 △도서관 해설 △복합문화공간 소개 △전주 문화 홍보 △여행해설사의 안전 등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이날 도서관 여행해설사 위촉과 더불어 해설사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 도서관 여행 세부 운영 계획과 도서관 정책, 안전 교육 등 도서관 여행 해설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과 더불어 올해 새롭게 추가되는 코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여행 프로그램은 총 7개 코스로, △2개의 하루코스(책문화, 예술문화) △4개의 주제별 운영되는 반일코스(이야기, 그림책, 비밀, 정원) △야간 도서관 여행 코스 등이다.

특히 올해 전주 도서관 여행의 경우 전주의 문화를 소개하고 알리는 복합문화공간도 함께 방문할 수 있어 도서관 여행자들이 다양한 주제별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경험하며 전주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6명의 도서관 여행해설사는 오는 3월 9일부터 운영되는 2024년 전주 도서관 여행에 참여해, 전주의 이색적인 도서관과 전주를 알리는 복합문화공간과 전주만의 책 문화를 소개하는 등 도서관 여행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관광자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주 도서관 여행 접수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며,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onju.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친환경 전주권 광역소각장 최종 입지 고시

### 시, 현 소각장 부지 결정... 행정절차 거쳐 공사 착수키로

전주시가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구현에 일조할 '친환경 광역소각장' 건립을 위한 첫 단추를 꼈다.

시는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통과한 '현 소각장 부지'를 친환경 광역소각장의 최종 입지로 결정·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5월 공고를 통해 접수된 입지후보지 3곳 중 입지 선정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입지 후보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와 시·군 의원 등이 포함된 21명의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입지선정위원회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 입지후보지에 대

한 타당성조사를 추진했으며, △1순위=전주시 완산구 효자4동(현 소각장부지) △2순위=완주군 이서면 △3순위=전주시 덕진구 우이2동의 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위원회는 이후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해 1순위 입지 주변 8개 마을의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관련 법에 따라 지난 6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주민들은 주요 질의사항으로 '입지후보지에 대해 편향된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했다'는 문제를 제기했으며, △현 소각시설로 인한 교통 불편, 건강 악화 등 문제 제기 △3개 폐기물처리시설 밀집에 따른 교통 가장 및 영향조사 필요 등 시설

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설명회 이후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 1순위 후보지인 '전주시 완산구 정어림로 625(현 소각시설 부지)'로 최종 입지를 선정 의결해 이를 전주시에 통보했다. 이로써 7개월간의 위원회 역할이 마무리됐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입지를 결정·고시한데 이어 곧바로 기본계획 수립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앙투자심사, 환경·재해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신설 예정인 친환경 광역소각장은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한 최적화 권역인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4개 시군의 생활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광역화 소각장으로, 1일 폐기물처리량 550톤 규모이다.

선정된 입지의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내용은 △주민편익시설 설치 △주민지원 기금 등이 있으며, 향후 구성될 신규 시설에 대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상립동 현 전주권 광역소각장지원센터의 운영 기한 만료(2023년 9월)를 앞두고 기술 진단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 광역소각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친환경 광역소각장 신규 건립을 추진해왔다.

김강주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장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후보지에 대한 조사 이전에 평가항목 및 기준을 먼저 결정하고 진행했다"면서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추가 설명회 및 공청회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창 전주시 자원순환본부장은 "신규 소각시설 건립에 대한 행정절차 진행 시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한 주민 화합을 중요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주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

전주시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페달보조방식(PAS, Pedal Assist System)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가 전기자전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온 만 18

세 이상시민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올해 총 100대를 지원할 예정으로, 구입 보조금은 1가구당 1대에 한 장하며 구입 금액의 50% 이하로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자전거 구입 금액이 60만 원 이상일 경우 30만 원을 지원하고, 60만 원 미만이면 구입액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품목은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시속 25km 이상 주행 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

달보조방식(PAS)인 전체 중량 30kg 미만인 전기자전거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전주시와 완주군 내 자전거 판매점에서 구입한 자전거만 구입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전동기 동력으로부터 움직이는 스로틀(Throttle) 방식과 파스 및 스로틀 겸용 방식의 자전거의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지원 품목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3월 28일 까지로, 전주시 대중교통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오는 4월

중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한 후 전자 추첨을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선정 결과는 4월 말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 게시 및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14일 이후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될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심규문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페달보조방식 자전거는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 제고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주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선착순 모집

전주시는 시내버스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 2024년 전주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민모니터단은 매월 10회 이상 전주시내버스를 이용하는 17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니터단은 3월부터 6월, 8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활동에 참여하면서 △안전 운행 △친절서비스 △차량 상태 등 3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해 제출하게 된다.

시는 모니터링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버스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모니터단에게는 월 최대 30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이 주어지며, 월 10회 이상 평가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월 2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

참여 신청은 13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naver.me/G2aPWF1)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2969, 2644)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전주매일 캠페인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